

보도시점 2026. 10. 29.(목) 12:00 (2026. 10. 30.(금) 조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2.0' 기반 경상남도 노동교육 협력 강화

- 10월 29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교육 협의체 회의 개최
- 올해 9개 지역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 완료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10월 29일(목)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경남 지역 전 생애 노동교육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하여 협의체 산하 노동교육협력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회의에는 경남지역 노사단체와 노동관계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원이 새롭게 선포하고 추진 중인 '고용노동교육 2.0' 전략 체계와 연계하여 경남 지역의 노동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노동교육 현황과 현장의 교육수요를 공유하고, 경남 지역에 필요한 노동교육 과제와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원은 지역이 스스로 노동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를 활용해 '지역단위 협의체'를 순차적으로 구성해 왔다. 지역단위 협의체는 ▲지역 노동교육 추진방향 논의 ▲교육수요 조사 및 협력사업 발굴 ▲강사·예산 등 교육자원 연계 ▲정책 제안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올해 협의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9개 지역을 선정했다. 경남 지역 회의는 전남, 광주, 충남, 경기, 강원, 제주, 부산, 세종에 이어 아홉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지역 노동교육 협의체 회의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2026년 9개 지역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이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원은 9개 지역 협의체에서 논의된 지역별 교육수요와 협력과제를 종합하여 지역 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협의체 참여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전문가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찾아 실천하는 노동교육 모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원은 산업구조 대전환과 복합 위기 시대의 노동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교육 2.0’을 선언했다. 이는 ▲전 생애 노동교육 활성화 ▲노사 및 사회적 대화 핵심역량 제고 ▲고용노동행정전문가 양성 ▲국가 중추 노동교육 허브 기능 강화 등 핵심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원은 앞으로 지역단위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전략이 지역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원 이종선 원장은 “경남 회의를 끝으로 올해 9개 지역에 노동교육 협의체를 구축하게 됐다”라며 “각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만든 협력 체계가 지역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동교육 네트워크를 촘촘히 다지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6년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지역단위 협의체 개요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개자료

담당 부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생애노동교육TF	책임자	팀 장	안성민	(031-760-7830)
		담당자	연구원	김도영	(031-760-7832)

□ **협의체(노동교육분과) 구성(안)**

- ①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시도교육청, ②지역 노동계 및 지역 재계, ③ 여성·청년 시민단체 및 노동권익센터, 지역 학계 및 노동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8~15명)

① 주요 기관	② 노사단체	③ 공공·시민·학계
▶ 시·도 자치단체 ▶ 지방노동관서 ▶ 시·도 교육청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지역 노총 (한국노총·민주노총) ▶ 지역 경총·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 지역 대학 노동분야 교수 ▶ 지역 노동권익센터 ▶ 여성·청년·이주민 시민단체

□ **협의체 주요기능**

- ▶ 지역 노동교육 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논의
- ▶ 지역 노동교육 실태조사 및 협력사업 발굴
- ▶ 지역 내 교육자원(강사, 예산 등)의 연계 및 협력
- ▶ 지역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노동인권 인식 제고

□ **9개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현황**

연번	지자체명	분과위원회명	회의 일정	비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생애노동교육분과위원회	8. 25.(화)	신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노사민정협의회)	노동분과위원회	9. 10.(목)	기존분과 활용
3	충청남도	전생애노동교육추진준비회의	9. 16.(수)	신설
4	경기도	전생애노동교육 추진협의회	9. 17.(목)	신설
5	강원특별자치도	전생애노동교육 분과위원회	9. 22.(화)	신설
6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상생지원분과위원회	9. 29.(화)	기존분과 활용
7	부산광역시	노동교육TF분과위원회	10. 8.(목)	신설
8	세종특별자치시	노동인권교육TF	10. 20.(화)	신설
9	경상남도	노동교육협력분과위원회	10. 29.(목)	신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 이하 ‘교육원’)**은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으로 설립된 이후,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통합·운영되다가, 2020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을 근거로 독립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재출범

□ **교육원의 설립목적(교육원법 제1조)**

- : (대상) 노사관계 당사자와 고용노동 업무 종사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여
- : (수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노동관계 문제 해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 (목적)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 **교육원의 주요 기능(교육원법 제6조)**

- : ①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②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③ 청소년·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④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⑤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⑥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등

□ **주요연혁**

- 한국노동교육원 설립 : 1990년
- 교육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공무원 직무교육(1999년)
청소년 등 일반 국민(2004년)
- 기관 및 근거 법률 폐지: 2008.12 * 기존 관련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로 이관
- 독립기관(노동부 12개 산하기관 중 하나)으로 재출범 : 2020.10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다시 제정(2020.3)